

토종 커피기계 동구전자 “수입산 커피머신 비켜” 전자동 머신으로 글로벌 도전장

카페 등 업소용 ‘티타임’ 출시
1잔 추출하는데 30초면 충분
수입산 반값... “가격 경쟁력”



동구전자가 외산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야심 차게 선보인 전자동 커피머신 ‘티타임’.

대한민국 커피 기계의 원조인 동구전자가 전자동 커피머신을 통해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등 글로벌 커피머신 브랜드 회사들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1대당 2000만~3000만원 하는 이들 값비싼 외산 기계에 비해 가격은 절반 이상 낮추고, 기존의 반자동 머신이 갖고 있던 단점을 극복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91년도 설립, 토종 브랜드로 30년 가까이 커피 머신의 외길을 달려온 동구전자의 이번 신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커피숍 등을 창업하려는 수요자들의 접근 기회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용 절감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동구전자는 수입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업소용 등 기존의 반자동 커피머신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동 커피머신 ‘티타임’을 개발해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

이 제품은 업소용뿐 아니라 일반 회사의 사내카페를 비롯해 관공서, 은행, 병원, 편의점 등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

업계에 따르면 업소용 외산 반자동 커피머신에서 커피 1잔이 추출돼 나오는 시간은 통상 1분30초 정도다. 하지만 거품을 내는 스티머, 온수기, 에스프레소 추출기를 모두 갖춰 외산 제품과 기능이 같은 동구전자의 티타임은 1잔

당 30초 정도면 충분하다.

동구전자 관계자는 “기존 반자동 커피머신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작동법이 복잡해 직원들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만드는 사람마다 커피맛이 다른 등 일관성이 없다는 단점”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 출시하는 전자동 커피머신 티타임은 기존 외산 제품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데다, 가격은 절반 이하로 낮춰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제품은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는 추출기인 ‘브로맥’을 뺀다 붙였다 하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돼 더욱 위생적이다.

대부분의 업소용 외산 커피머신은 브로맥을 착탈할 수 없어 청소시엔 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구전자는 이 기술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특허를 인정받는 특허협력조약(PCT)에도 특허를 출원, 글로벌 커피머신 회사들의 대응에 만반의 준비까지 해놓은 상태다.

박원찬 동구전자 회장은 “수입 머신은 가격이 너무 비싸 커피숍 창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컸었다”면서 “30년 가까운 기술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신제품이 코로나19 때문



박원찬 동구전자 대표(왼쪽)가 성남에 있는 본사 공장 생산라인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에 가뜰이나 힘들어하는 분들의 자립을 돕는데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회장이 91년 당시 설립한 동구전자는 93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이컴 방식의 전자동 커피서비스 제품을 개발했다. 음식점 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티타임’은 동구전자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소위 ‘다방커피’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한 티타임은 지금까지 100만대가 넘게 팔려나갔다.

이후 2001년엔 페이퍼 필터방식의 원두커피머신, 2008년에는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을 각각 개발해 선보이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커피머신 중추국 틈새에서 국산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동구전자의 커피머신은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29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인스턴트 커피머신에서 시작해 원두커피 머신, 그리고 전자동 커피머신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만들어 외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경제의 방위사업체’라는 생각이 든다”며 활짝 웃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TRI, AI 전문가 본격 양성

아마존웹서비스·엔비디아와 맞손
인공지능 아카데미 교육 과정 개설

정부출연연구원이 제4차 산업혁명 및 지능화 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선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기계 학습 및 AI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엔비디아(NVIDIA) 코리아 및 아마존웹 서비스(AWS) 코리아와 공동으로 AI 교육과정을 개설해 AI 아카데미 원내 교육을 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엔비디아-딥 러닝 인스티튜트(DLI)의 영상처리분야 과정을 시작으로 8월에는 AWS의 AI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기계학습 과정 등을 개설해 다양한 교육이 진행된다.

ETRI-AI아카데미는 연구원 내 AI 관련 연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인력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AI 분야 핵심연구개발 역량과 AI를 이용한 산업특화 활용역량 강화 등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아카데미는 직무별 학습경로를 바탕으로

로 전략, 기초·공통, 전문, 심화, 고급 과정 등 5개 과정의 교육체계에 구성되며,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교육, 팀 프로젝트형 실무중심 원내교육 등도 운영된다.

연구원은 지난달 1일 운영전담부서인 AI전문인력양성실을 꾸리고 내·외부 위원으로 교육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비대면 교육환경 변화 추이에 따라 AI 분야 국내·외 온라인 교육과정도 병행해 제공한다. 특히, AI 전담교육장을 새롭게 정비,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서버와 같은 AI 교육용 컴퓨팅 환경을 구축해 팀프로젝트 심화과정의 교육 효율성 및 학습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AI아카데미는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 타 연구기관이나 공공 및 유관기관 등에 AI 활용역량 지원을 위해 교육플랫폼을 개방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및 대경권, 호남권 등 ETRI 지역연구센터와도 연계한 지역산업특화 AI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AI 리걸테크’ 코메이크, 시드 투자 유치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 코메이크가 액트너랩과 미스크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코메이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계약서 서명, 보관, 관리가 가능하며 AI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과 검토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AI가 자동으로 조항별 적정성에 대해 분석해주고 적절한 조항내용을 제시해준다. 현재 이 서비스는 베타테스트 중이며, 7월 말 오픈할 예정이다.

전자계약은 비대면 계약으로 기존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서명 기능을 사용하면 PC는 물론 모바일 환경에서도 서명등록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체결된 계약서는 미국 요세미티X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



인공지능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 코메이크가 액트너랩과 미스크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코메이크

코메이크의 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입하면 계약서를 완성해주는 서비스다. 날짜, 당사자, 핵심 계약 내용, 비밀정보 범위 등 계약 조건을 채워 넣으면 법률 용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동으로 계약서가 완성된다. 완성된 계약서는 상대방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돼 곧바로 계약 검토 및 체결 과정으로 연결된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중기부, 아마존과 손잡고 스타트업 육성

‘정글 프로그램’으로 30개사 지원

글로벌기업 아마존 계열인 아마존웹 서비스가 국내 스타트업 육성에 동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마존웹 서비스와 협업을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정글 프로그램’을 만들고 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정글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e커머

스·핀테크·스마트 물류, 인공지능(AI) 분야 등의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지원규모는 30개사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선 중기부가 1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의 경우 후속 R&D 자금을 2년간 최대 4억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아마존웹 서비스는 본사 전문가와 분야별 1대1 매칭 컨설팅, 아마존웹 서비스 클라우드 사용 지원, 아마존닷컴 등과 연계한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5일 트위터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구글과 협업한 ‘창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타트업들에게 기술·시장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다. 60곳이던 창구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올해 들어 80곳까지 늘어났다. /김승호 기자

타다 프리미엄, 1주년 기념 반값 혜택

선착순 회원 1000명 대상

타다가 중고급 이동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1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타다는 오는 8월 12시 타다 앱에 접속하는 선착순 회원 1000명에게 타다 프리미엄 50% 할인 쿠폰을 증정한

다. 해당 쿠폰은 2주 이내 사용 가능하며, 타다 프리미엄 이용료 50%를 조건 없이 할인 받을 수 있다. 오랜만에 앱에 접속하거나 타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는 10% 할인 웰컴 쿠폰도 증정한다.

최근에는 차량을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랜덤 업그레이드 배차’ 이벤트도 운영 중이다. 타

다 프리미엄을 호출하면 세단이 아닌 카니발 하이리무진 모델이 무작위로 배차되는 방식이다. 차량 내에는 생수와 할인 쿠폰도 제공되며, 업그레이드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중진공,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요 권역별 현지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7일 밝혔다.

해외시장 정보부족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현지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조사한 생생한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한다. 중진공은 현재 16개국에 걸쳐 25곳의 해외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소비행태나 코로나 19 이후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자전거

열풍이 일어난 이유,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관심을 끄는 이유에 대한 싱가포르 진출기업의 인터뷰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게시했다.

이외에도 중진공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과 현지 동향 등을 비롯해 대륙별·지역별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국가별 유망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진출에 성공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도 엿볼 수 있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